찻잔 든 무산 대종사…부도탑마저 중생 향하다

신흥사, 5월 31일 양양 낙산사서 부도탑 제막

중앙에 사리 봉안…사진촬영 가능
자승 스님 "대종사 유지 받들길"

양양 ·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설악산문을 부흥시킨 선지식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시조시인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부도탑이 대종사의 오도처인 양양 낙산사에 새롭게 조성됐다.

설악산 신흥사(주지 지혜)는 5월 31일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상 앞에서 무산 대종사 부도탑 제막식 및 원적 5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무산 대종사 문도회와 후학들은 대종사의 사상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원적 5주기를 맞아 낙산사 해수관음상 앞에 부도탑을 새로 조성했다. 앞서 문도회와 후학들은 대종사 원적 3주기 추모다례재에서 신흥사 부도전에 사리탑과 비를 조성하기도 했다.

격외의 증도가로 중생을 제도했던 무산 대종사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부도탑인 만큼 새로 조성된 부도탑은 전통을 벗어나 파격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나아갔다. 부도탑은 김경민 공공설치 조각가가 참여해 조성됐다. 왼쪽에는 무산 대종사의 동상이, 중앙에는 사리가 봉안되며 대종사의 시조 '파도'와 그림이 새겨졌다. 오른쪽에는 참배객 누구나 앉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음대 현악4중주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부도탑 제막식은 △부도탑 제막 △상월 뮤지컬 합창단의 축하공연 △무산 대종사 동영상 시청 △무산 대종사 행장 소개(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인사말(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제막사(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부도탑 봉안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도탑 봉안식은 부도를 조성한 김경민 작가와 지역 고등학생인 김민후(속초고3)군과 고윤정(속초여고3)양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상월결사 회주)은 제막사에서 무산 대종사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후학들이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무산 대종사는 두 번 만나 뵙기 어려운 당대 선지식"이라며 "대종사의 원적 5주기에 함께한 이 같은 인연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5월 31일 양양 낙산사에서 열린 설악 무산 대종사 부도탑 제막식에서 새로 조성된 부도탑에 헌화하고 있다.

이어 "특히 상좌스님들은 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지역포교와 수행 정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대종사가 전한 가피와 법을 낙산, 보성, 양양, 강릉, 설악을 중심으로 불교중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프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며 중생의 고통을 아파하던 매화는 향기 장사가 아니라며 하염없이 베푸셨다"며 무산 대종사의 선풍을 추모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이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지혜 스님은 "대종사께서는 이념, 사상, 철학, 종교를 떠나서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다"면서 "저희 설악산문 대중들은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서로 배려하고 나누면서 종단과 사회에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 및 추모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부의장 보선 · 도후 대종사와 원로의원 일면 · 원행 · 지명 · 도영 · 원각 · 법등 · 동명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성우 대종사,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법주사 주지) 등 교구본사 주지,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총림 방장 및 원로 · 중진스님들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양수 · 이철규 국회의원,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신달자 시인, 오세영 작가와 신흥사, 낙산사, 백담사 신도, 용대리 주민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대종사를 추모했다.

한편 무산 대종사(1932~2018)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밀양 성천사로 동진출가, 인월 화상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젊은 시절 금오산 토굴에서 6년 동안 고행했으며 설악산 신흥사에서 정호당 성준 화상을 법사로 건당했다. 이후 신흥사 조실이 되어 설악산문을 재건했으며, 조계종 기본 선원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저술로는 〈벽암록 역해〉 〈무문관 역해〉 〈백유경 禪解-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 을 어찌 알랴〉 〈선문선답〉 등이 있다.

일찍이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스님은 한글 선시조를 개척해 현대 한국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시집으로 〈심우도〉 〈절간이야기〉 〈아득한 성자〉 〈적멸을 위하여〉 등이 있다.

또한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설립해 만해대상, 만해축전을 개최하고 만해마을을 조성해 동국대에 기부하는 등 포교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세웠다. 이 같은 공로가 인정돼 국민훈장 동백장과 은관문화훈장, 조계종 포교대상, 가람시조문학상, 정지용문학상, DMZ평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법 대응"

사노위 등 불교계, 수요시위서 방류 중단 촉구

불교환경연대, 환경단체와 본격 활동
"일본정부에 오염수 투기 권리 없다"

일본이 내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불교계가 한목소리로 국제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등 피해 당사국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특히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6월 7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수요시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추모기도회와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금 당장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한다고 촉구한 이들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발전소에 대한 형식적인 시찰단과 원자력에 대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IAEA 판단에 기대어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커다란 과오가 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발전소와 인접국가인 한국은 최대 피해가 예상되기에 완벽하고, 철저한 검증 없는 오염수 방류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노위는 일본정부가 2021년 4월,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규탄활동을 펼쳐왔다. 주기적인 기도회를 통해 "재앙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온 사노위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한 올해 5월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통해 규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단체들과 연계, 6월 8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주한일본대사관에 '일본정부에게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권리는 없다'는 항의서한을 제출하기도 한 이들은 "우리는 태평양과 환경, 안전, 생명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맡긴 적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구의 바다에 더불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단체들과 연계, 6월 8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해안 스님은 일원 스님, 혜조 스님과 함께 6월 1일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예술로 표현하는 우리의 의사표현-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지켜내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 그린 흑등고래와 물고기 그림 등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후쿠시마 핵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명운동도 적극 권선하고 있는 상태다. 해안 스님은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면서 "동참과 호응해주는 시민들을 볼 때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본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협상 아닌 선결 문제"

사노위, 제1599차 수요시위 주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6월 7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59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했다.〈사진〉 이날 시위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하는 힘찬 구호로 시작됐다. 이어 사노위는 피해자 할머니와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회를 봉행하고 시민들과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노위원 시경 스님은 주관단체 인사말에서 먼저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계시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나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일침을 가했다. 스님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엄격함이 아니라 일본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면서 "성노예제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을 백 분의 일이라도 알고 있기라도 한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부정하고 있기에 반드시 성노예제 문제에 관해 일본정부의 공식 인정, 사과 배상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선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서 봉준희 이화여대 역사실천 소모임 회장은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동참자들은 일본정부에 △전쟁범죄 인정과 진상규명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역사왜곡 중단과 올바른 교육실시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에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앞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먼저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